



Market Index / 16일

코스피지수 ▲ 3163.25 +16.25	코스닥지수 ▼ 977.74 -4.23	유가(WTI, 달러) ▲ 59.47 +1.23	환율(원)	1USD 1121.28 100¥ 1064.09	살매 1082.72 팔매 1027.49	1EUR 1365.40 1CNY 180.39	살매 1312.12 팔매 163.21
---------------------------	-------------------------	------------------------------	-------	------------------------------	--------------------------	-----------------------------	-------------------------

“가사분담 공평” 말 뿐... 변화 더딘 제주사회

제주도민 가사일 공평 분담에 64.7% 공감 반면 현실은 여성이 집안일 소요시간 3배 길어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일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주도민은 늘었으나, 여전히 실생활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3배 가까이 긴 시간을 집안일에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16일 발표한 '제주도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 자료에 따르면 부부의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제주도민 64.7%가 '공평 분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0년 40.2%보다

24.5%p나 증가한 것으로, 부부간 공평한 가사 분담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은 성별로 엇갈렸는데, 공평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58.3%인 반면, 여자는 71.2%로 나와 12.9%p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19년 기준 19세 이상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1시간 9분으로, 여성(2시간 53분)보다 1시간 44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간

가사일에 대한 공평 분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인식 변화에 따른 가사 공평 분담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와함께 도민들은 '일과 가정생활' 모두를 중요시하는 '워라벨'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일과 가정생활 중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지에 대해 46.7%의 제주도민이 '둘다 비슷하다'고 답했다.

또 제주도민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5억 214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의 2억 8157만 원 보다 85.2% 증

가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부채는 가구당 7869만 원으로, 2012년(4843만 원) 보다 62.5% 늘었다.

2020년 제주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68.8%로 2010년 대비 2.5%p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 경제활동인구는 38만8000명이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68.8%로 전국(62.5%)보다 6.3%p 높게 나타났다. 2010년 대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5%p 감소한 반면 여성은 5.2%p 증가했다.

제주 취업자의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지난해 38.3시간으로 2010년 대비 5.1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윤기자



제주농협 화훼농가 지원 '앞장'

꽃 소비 촉진 행사 개최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제주지역 화훼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승표)가 도내 화훼농가 지원에 나섰다.

농협제주지역본부는 16일 제주시농협에서 '꽃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꽃 소비가 급격히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이뤄졌다.

>>사진: 더불어 농·축협 영업점에서 16~17일 양일에 걸쳐 고객들을 대상으로 '꽃 나눔 행사'를 전개하는 등 꽃 소비 촉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

제주농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도 다양한 '꽃 소비 생활화 행사'를 지속적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화훼 농가 조합원을 위해 '상호금융 영농우대 특별저리대출'을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연2.0%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대출 만기는 1년 이내이다. 완화된 기준으로 영농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승표 본부장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화훼 농가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실의에 빠진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제주항공 자유 항공권 '프리패스 21' 오픈

제주항공이 3월 한 달간 노선과 날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편도 21회까지 자유롭게 탑승이 가능한 자유 이용 항공권 '프리패스 21' 1000매를 16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있다. 프리패스21 항공권은 탑승일 기준으로 3월 1~31일 국내선 전 노선 사용 가능하다.

요일에 관계없이 편도 21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월간 이용권은 25만2000원, 금·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주중 편도 21회를 이용할 수 있는 주중 이용권은 14만7000원에 판매한다. 각 이용권은 FLY온임(기내수하물 10kg, 위탁수하물 없음)이 적용된다.



무 수확 작업 분주 17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유채꽃을 베개로 무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중소기업 “중대재해법 제정에 경영 부담”

중소기업중앙회 의견조사 산재예방 위한 지원 필요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인식조사에서 응답한 중소기업의 45.8%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매우 부담된다',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답했다. 특히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보다,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더욱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은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와 '현 상태 유지'(50.2%)가 높게 나타났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작업매뉴얼 부족(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부족(1.2%)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가 42.8%로 나타났으며,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제주상의 무료변리상담 18일부터 제주벤처마루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는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제주벤처마루 10층 센터 상담실에서 올해 첫 번째 무료변리상담지원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이 지원하고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실시하는

'무료변리상담'은 매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소속 변리사들을 통해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무료 상담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서비스는 매월 1회씩 지원될 계획이며, 도민들의 변리상담 수요에 따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 수료생 26명 중 21명 채용

제주특별자치도는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를 수료한 26명 중 21명이 네오플에 정규직 또는 인턴으로 채용됐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청년 취업을 위해 제주테크노파크, 주식회사 네오플과 함께 '네

오플 제주 아카데미'를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는 2D 그래픽과 프로그래밍 등 2개 과정으로 꾸러졌다. 이 아카데미는 지난해 11.5대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다.

올해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 모집 계획은 4월중 발표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증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 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 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쉽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 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